

原子力安全文化의 定着을 圖謀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庚午年 새해가 밝았다. 이 아침은 今世紀를 마무리 짓는 '90年代의 黎明이요, 새로움에의 挑戰의 의지를 일깨우는 커다란 기지개이다. 原子力安全센터는 庚午元旦을 맞아 남다른 感懷와 벽찬 기대, 그리고 가늠하기 어려운 責任感에 가슴 설레임을 느낀다.

지난 해 12월 30일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法律 第4195號)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原子力安全센터는 이제 國內 唯一의 原子力安全規制專門機關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年代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激變을 거쳐오면서 經濟發展을 거듭한 時代로, 特히 原子力産業界는 原子力發電을 國內 主宗電力源의 位置로 끌어올리고, 우리 손으로 輕·重水爐用 核燃料을 國產化 供給하는 등 눈부신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에 反해, 原子力安全分野는 '80年代 문턱에서 發生한 美國의 TMI-2 原子力發電所 事故('79.3)와 소련 Chernobyl 原子力發電所 事故('86.4) 등 두 原子力 宗主國들의 大型原電事故로 얼룩졌고, 이로 인해 世界的으로 極甚한 抵抗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과거 原子力政策 決定과정에 관한 國民的

疏外感 등의 上昇作用으로 近年에 와서는 原子力安全에 대한 根本的 不信 풍조마저 擴散되는 듯한 樣相을 보이고 있어 原子力施設 주변 住民들에게 不安要因이 되고 있음은 물론, 原子力事業 推進상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工業化에 必須的으로 뒤따르게 마련인 “資源의 大量消費”와 보다 쾌적한 생활의 추구로 직결되는 “環境保存” 問題가 지난 '80年代로부터 물려받은 時代的 背反律이었다면, 새로이 맞은 '90年代는 이들 課題를 調和시키고 共通因자를 發見해 내는 解決의 時代가 될 것이 確實하다.

原子力利用 增進과 安全性 確保도 같은 맥락의 課題로서 利用과 安全이 相反의 概念이 아니라 相互 補完의 概念에서 解決돼야 하며, 더 나아가 國民的 合意와 信賴위에 發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原子力安全과 規制의 役割

原子力利用에 수반되는 安全問題는 本質的으로 核物質이나 放射性物質로 부터 放出되는 日常的인 放射線被曝과 原子力事故에서 招來될

수 있는 막대한 放射能災害 등 두가지에 그 原因을 귀착시킬 수 있으나, 어떠한 境遇이든 간에 放射線被曝의 原因을 제거, 또는 最少化하여 人體에 미치는 放射線영향을 극소화하는 것이 問題解決의 열쇠라고 하겠다.

原子力發電所와 같은 大規模 原子力施設에서의 放射能 漏出事故를 예방하고, 放射線被曝을 可能な 限 最少化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概念의 구현을 國際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지난 1988년 “原子力安全目標”를 提示하고 이를 달성하는 主要手段으로 會員國의 原子力界에 대하여 安全文化(Safety Culture)의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 一般 原子力安全目標 —

個人, 社會 및 環境을 保護하기 위하여 原子力發電所에서의 放射線 장해에 대한 効果적인 防護대책을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

— Basic Safety Principles for NPPs —
1988 IAEA —

放射線이 人體에 미치는 健康상의 손상이나 유전적인 영향과 環境汚染에 의한 2차적 장해 및 原子力事故 등으로 인한 방대한 被害規模, 장기(수십년)간의 회복기간, 社會的·經濟的 影響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原子力은 다른 産業 보다도, 特히 安全性 保障이 先決要件으로 強調돼 왔으며, 그간 原子力界는 安全問題를 解決하고 이를 實證하는데 온갖 노력을 쏟아 왔다.

물론, 原子力利用에 따르는 安全性 保障의 一次的인 責任은 原子力 事業者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原子力 安全問題가 안고 있는 特殊性 때문에 政府는 國民保護次元에서 이른바 原子力安全規制制度를 마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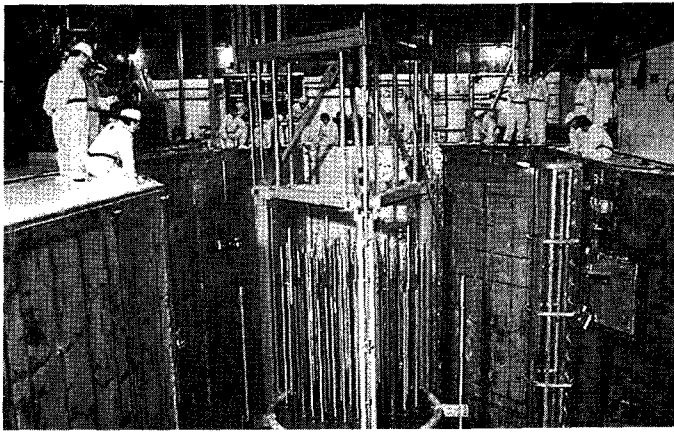


제3자적 입장에서 安全性을 確認함으로써 事故의 예방과 放射線被曝의 最少化를 도모하고 있다.

結局 原子力安全規制는 原子力 利用開發과 關聯한 放射線被害로 부터 國民과 國土環境을 保存하는데 궁극적 目標를 두고 있는 國家의 國民保護機能으로서 고도의 專門技術과 公定性이 요체이다.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의 機能과 重點課題

서두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政府는 原子力安全規制의 公定性을 보강하고 規制技術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專門性 제고 등을 目的으로 지난해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을 制定·公布하여 현 “原子力安全센터”의 法定獨立을 推進중에 있다.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第1條 (目的)
 이 법은 原子力安全規制專門機關으로서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이하 “安全技術院”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原子力の 생산 및 利用에 따른 放射線 災害로 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公共의 安全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이하 安全技術院)은 原子力安全規制專門機關으로서 原子力法(法律 제3850호)에 根據한 政府의 原子力安全規制機能을 代行 또는 技術支援하는 機關이며, 原子力安全과 關聯되는 專門的, 技術的 業務를 擔當하는 公共機關이다.

安全技術院法 第6條(事業)
 安全技術院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事業을 한다.

1. 原子力法 第1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탁받은 業務
2. 原子力安全規制 技術開發
3. 原子力安全規制 政策 및 規制開發을 위한 技術支援
4. 放射線 防護技術 支援
5. 原子力安全規制 情報管理
6. 環境放射能 調査 및 評價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부대 事業으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事業

安全技術院은 그 設立취지와 機能, 原子力安全에 대한 社會的 要求, 그리고 최첨단 綜合裝置産業인 原子力技術의 發展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設立 첫해인 金년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에 重點을 두어 安全技術院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安全規制專門機關으로서의 公定性 確立과 國民信賴 形成을 위한 業務體系의 構築

—原子力安全에 關한 國際共同研究 參與 등 國內外의 研究資源을 綜合 活用하는 本格的 規制技術 開發事業의 推進

—環境放射能에 關한 독자감시能力의 完비 및 施設 주변에 대한 Double Check 定着

—安全規制 實績의 積極的 공개와 原子力安全 지식의 보급 등 原子力安全文化의 擴散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의 設立은 '80年代에 우리나라 原子力界가 거둔 큰 實績의 하나로서 우리 原子力史에 커다란 족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安全技術院이 추구코자 하는 方向을 提示해 보았으나, 安全技術院이 原子力界와 國民 모두가 함께 믿을 수 있는 機關으로 成長하여 주어진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선 設立 주체인 政府와 原子力界의 끊임없는 支援과 國民들의 넓은 理解가 必要하다.

새해에도 우리나라 原子力産業界가 더욱 큰 發展을 이루길 기원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에 많은 성원 기대한다.